

■ 법률 칼럼

### 2023년 12월 영주권 문호

#### 1.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문호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11월과 같이 우선일자(통상적으로 I-130 접수일)가 2023년 9월 1일 이전인 경우는 영주권신청서(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가능 일자도 2019년 2월 8일로 지난달과 같습니다.



#### 2. 취업 3순위 전문직 문호

3순위 전문직의 국무부 I-485 접수 가능일(우선일자: 2023년 2월1일)로 지난 11월과 같습니다. USCIS도 같은 날짜를 따르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일자(Priority date: 폼접수일)가 2023년 2월1일 이전인 경우는 폼 승인 후 I-140과 I-485를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승인 가능일도 지난 11월과 같이 2021년 12월1일입니다. 지난달과 같이 우선일자(PERM 파일 날짜)가 2021년 12월1일 이전이면 영주권 승인이 가능합니다.

2023년1월1일 이전인 경우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가능일은 2022년 7월15일로 우선일자가 2022년 7월15일 이전인 경우는 심사가 끝나면 영주권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 5. 종교이민 문호 (안수직)

종교이민의 경우도 지난달과 같습니다. 우선일자(I-360 접수일)가 2019년 3월1일 이전인 경우만 I-360 승인시에 영주권신청서(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승인 가능일도 2019년 1월1일로 지난달과 같습니다.

\*\* 비안수직의 경우 영주권 접수일은 안수직과 동일하게 2019년 3월1일이 우선일자인 경우는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진=shutterstock

#### 3. 취업 3순위 비숙련 문호

12월 문호는 지난 11월 같습니다. USCIS filing chart에 따르면 2020년 12월15일을 접수 가능일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 priority date(폼 접수일)가 2020년 12월15일이거나 이전인 경우는 I-140과 I-485를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 가능일은 2020년 8월1일입니다. Priority date(우선일자, 폼접수일)가 2020년 8월1일 이전이면 이민관이 심사를 마친 경우 영주권을 승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 4. 취업2순위 문호

12월 문호는 지난 11월 같습니다. 우선일자(폼접수일: priority date)가

Law Offices of Joseph KW Cho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전문의 칼럼

### 고지혈증과 스타틴 약물치료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의 큰 위험인자 중의 하나가 저밀도 콜레스테롤(LDL-C)입니다. 수많은 연구들에서 LDL-C 농도와 심혈관질환의 선형관계가 증명되어 있고, LDL-C의 수치를 내리는 것이 심혈관질환 발생과 사망률 감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질환이 없는 환자에서는 올라간 LDL-C 수치를 내리는 것만이 임상적인 효과를 보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 중성지방을 낮추거나 고밀도 콜레스테롤(HDL-C)을 올리는 것은 연관이 없다고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고지혈증 치료로 가장 흔히 사용되고 효과가 좋은 약이 스타틴(Statin)입니다. 성분에 따라 일곱 가지 종류의 약이 나와 있고, 그 중에서도 아토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 심바스타틴 등이 많이 사용되어 시니어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스타틴 약물로 LDL-C를 낮추는 치료는 사실상 모든 정도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스타틴 치료는 심혈관계 위험을 20-30% 낮추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타틴의 부작용이 전혀 없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위험인자가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스타틴을 먹이라고 권하는 게 합리적인 정도로 효과가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 모든 치료와 약물은 정도는 다르지만 비용 문제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물치료는 항상 약물을 사용함으로써의 득과 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 결정해야 합니다.

#### ■ 스타틴의 부작용

모든 약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타틴은 다른 종류의 콜레스테롤 약에 비해서 부작용의 빈도가 낮은 편입니다. 가장 흔히 알려진 부작용은 근육통입니다만 최근의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육 부작용의 빈도는 전에 알



려진 것과는 다르게 사실상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밖에 두통이나 소화기 부작용, 간 수치의 증가 등의 부작용이 적은 빈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 스타틴은 한번 시작하면 평생 복용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약 복용을 중단할 경우 몇 달 안에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심혈관계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복용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다만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병행하여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진 경우 스타틴 용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약을 먹든 안 먹든 우선 체중 감량, 유산소 운동, 포화지방 섭취의 감소 등의 생활습관 교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진=shutterstock

김성현 내과 보드전문의  
(714) 562-9139  
6131 Orangethorpe Ave, #150A  
Buena Park, CA 92620



#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